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기행

> 서론 <<

미국에서 9월은 긴 여름방학을 보낸 자녀들이 신학년을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때이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름방학동안 새로이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시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기전에는 방문할 곳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미리 여행가이드를 읽고, 여행 중에는 방문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며,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여행중에 적은 메모와 방문지에서 가지고 온 브로셔 등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기행문이나 감상문을 써보는 것은 작문실력 향상에도 좋을 뿐더러 인생의 좋은 기록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7박 8일 동안 여행한 코스는 다음과 같다. 뉴욕에서 메사추세츠주를 거쳐 뉴햄프셔주에서 일박하고, 메인 주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루백에 도착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등대앞에서 해돋이를 보고 루백시내를 구경하면서 루백도서관을 방문하고, 다리를 건너 캐나다영 캄포벨로섬에 도착, 프랭클린 루즈벨



송은경
데이비스초등학교 도서미디어 교사
okjoo07@gmail.com



▲ 루백의 해돋이 모습



▲ 루백의 등대와 그 앞의 바다

트 대통령의 기념관을 관광한다. 카 페리를 타고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빨간머리 앤의 저자인 엘 엠 몽고메리가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낸 그린 게이블스와 그 일대를 관광한다. 다시 카페리를 타고 노바 스코샤에 도착하여 발명가 알렉산더 벨 박물관을 관람한다. 곧 이어 탐험가 존 캐봇의 이름을 딴 캐봇 트레일(Cabot Trail)을 따라 운전하며 북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절경을 바라본다. 다시 뉴브런즈윅으로 와서 세계에서 가장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펀디 국립공원에서 조수로 인해 화분처럼 깎인 9미터 높이의 바위를 내려다본다. 마지막으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사추세츠주에서 미국 독립운동의 발발지인

렉싱턴과 콩코드시를 답사하고 엠허스트에 위치한 아동작가 에릭 칼 그림책 박물관과 스프링필드에 있는 닥터 수스의 야외조각기념관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총 2,400마일의 여정이었다.

숨사탕같은 하얀 구름에 대비되는 파란색 맑은 하늘과 산수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치 외에도, 가는 곳마다 여행 안내책자와 브로셔등을 통해 그 고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새로이 배우고,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의 자취들을 피부로 느끼는 기쁨이 컸다. 필자가 방문한 곳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면 좋을 곳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메인 주의 루백의 역사적 배경과 루백기념도서관이 지어지게된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미국의 최동쪽 끝 루백의 역사적 배경 ◀

루백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심좋은 조용한 어촌으로 아름다운 바다경치를 보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다. 퀴디헤드 국립공원에는 온갖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며, 그림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등대가 24시간 오가는 배들을 위해 빛을 비춰준다.

인구가 1650명인 이곳은 조용해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루백에는 처음에 미국 원주민들이 거주하다가 그 후 프랑스에서 온 아카디언들(1600년대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의 북동부 해안에 이주하였던 프랑스인들의 후예를 지칭)이 1700년대 초에 이곳 해안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50년간 살다가 후에 영국인들에 의해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미국 북동부에서 온 미 독립전쟁의 미국군 소속 병사들 그리고 캐나다의 노바 스코샤에서 온 미국군의 지지자들이 이곳에 와서 나무를 잘라 집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축들을 기르며, 생선과 어패류들을 채취하며 생활하였다. 그들은 또 방앗간과 벽돌만드는 공장들도 만들었다. 1800년대 초에는 이곳 사람



루백의 시내 ▲

들이 루백에서 지적에 있는 캐나다영 캄포벨로섬에 있는 영국산 상품을 밀무역하다가 1818년에 영국과 미국간의 국경이 확정지어지면서 밀수입이 사라지고 훈제공장 및 조선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 납과 구리광산에서 50년간 채굴이 계속되었고 인구가 폭증하였다. 그러나 증기력이 도입되면서 돛단배를 이용한 산업은 하향길에 이르렀다.

현재 루백의 주민들은 조개채취, 생선과 랍스터, 스캘롭 잡이, 송어와 연어 양식 그리고 블루베리 채집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 루백의 산업은 바다에서 잡는 어패물, 산과 들에서 채집하는 식물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불과 200년 전에 상선과 여객선들로 붐볐을 루백항구가 이제는 미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조용한 어촌으로 되돌아 온 것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 루백기념도서관 방문후기 << >>

필자는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마다 공공도서관을 발견하면 꼭 들리는 습관이 있다. 공공도



루백의 모습 ▲

서관에서 그 고장의 분위기를 한눈에 접할 수 있을 뿐더러 사서들과 대화도 나누고 뜻하지 않게 희귀하고 귀중한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 본성에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일한 경험과 현재의 직업이 도서미디어 교사인지라 도서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인가보다.

루벡에서 해돋이를 보고 한적한 거리를 거닐다가 조그만 단층 건물에 있는 루벡기념도서관의 간판을 보고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자마자 두명의 사서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이어서 눈에 뜨이는 것은 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오이들과 “우리집 밭에서 오이가 많이 열렸으니 마음대로 가져가세요”라는 문구였다. 아담한 내부에는 랩탑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주민들과 검정색 가죽소파에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는 주민들이 보였다.

자료실에서 루벡시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여 이 도서관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에 지어진 현재의 루벡기념도서관은

루벡기념도서관의 외관 ▼



1946년에 루벡 소재 기독교 교회의 한 목사와 뜻있는 루벡시 시민들에 의하여 루벡기념도서관을 위한 협회가 형성되어 도서관으로 메인 주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도서들은 메인 주의 중앙도서관에서 배달되어왔으며 도서관 건물이 없어 주점의 한편을 이용해서 책을 보관하고 주민들에게 대출하였다.

1949년에 루벡의 한 의사의 부인과 그녀의 친구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새 장소를 찾아 보수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기부하였다. 수년 후 도서관의 책들은 맥커디 훈제소의 사무실로 이전되었는데 1961년에는 스킨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도서관으로 쓰기 위해 5,000불에 구입하게 되었다. 섬너 파이크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 이 도서관의 성인부를 위해 많은 책을 기증하였고 이 도서관을 위해 기부되는 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매칭하여 기부하였다. 파트타임 사서가 일 주일에 사흘 오후에만 도서관 업무를 보았다. 1980년대 말 도서관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대출이 증가했고 면적도 확장되었다.

1997년에 힐다 뱅스라는 여자가 새 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20만불을 쾌척하겠다는 유언을 했는데, 자신이 사망한지 4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것이 촉매가 되어 도서관 위임위원회, 직원들,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마땅한 장소를 찾고, 도서관을 디자인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새

도서관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기금이 조성되었고, 유언집행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자금 지원을 하여 2001년 7월 4일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새 도서관이 현재의 장소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루베크기념도서관은 바닷가에 위치한 아담한 자체 건물에서 루베크와 캄포벨로 섬, 기타 인근의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종류의 자료와 미디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리사이틀, 전시회, 강연 및 연설, 기타 프로그램 유치를 환영하고 있다.

서비스 인구가 1,650명인 이 루베크기념도서관에 지난 해 5,158명이 방문하였고, 총 19,049권

의 장서중에서 18,490권이 대출되었다. 도서관은 1명의 풀타임 사서와 1명의 파트타임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두 명 다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직원용 컴퓨터 1대와 이용자를 위한 컴퓨터가 4대 있으며 전자서비스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의 정부보조비는 전체 예산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수잔이라는 사서는 이 곳의 자연 환경이 좋아 평생 살아온 이 곳을 떠날 수 없다고 하며, 도서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필자는 하루종일 바다를 앞에 두고 책과 함께 일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반기는 수잔의 모습에서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다. (44)

[자료제공 : 루베크기념도서관(Lubec Memorial Library), 사진 : 주동원]

▼ 루베크기념도서관의 이름이 바다유리와 조약돌로 건물일부분에 새겨져 있다.

